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2 권 3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성체조배: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이규용 요한 (661-619-1081)

| 미사성가                                                                                                                                                                                                                                                                                                      | 입당 () | 봉헌 ()                                                                                                                                                                                                                                                 | 성체 () | 파견 () |
|-----------------------------------------------------------------------------------------------------------------------------------------------------------------------------------------------------------------------------------------------------------------------------------------------------------|-------|-------------------------------------------------------------------------------------------------------------------------------------------------------------------------------------------------------------------------------------------------------|-------|-------|
| <p>▶제 1 독서</p> <p>신명 4,1-2.6-8</p> <p>화답송</p> <p>◎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p> <p>○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p> <p>○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p> <p>○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p> |       | <p>▶제 2 독서</p> <p>야고보 1,17-18.21 L-22.27</p> <p>복음환호송</p> <p>◎알렐루야.</p> <p>○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p> <p>▶복음</p> <p>마르코 7,1-8.14-15.21-23</p> <p>영성체송</p> <p>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p> |       |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9 월 2 일  | 이 마틸다 | 이 바오로 |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
| 9 월 9 일  | 이 클라라 | 이 요한  |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
| 9 월 16 일 | 이 마틸다 | 김 헬레나 |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
| 9 월 23 일 | 이 클라라 | 이 바오로 | 성인복사          |
| 9 월 30 일 | 이 마틸다 | 이 요한  |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

##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 주일미사     | 봉헌금       | 감사 봉헌    | 교무금      |
|----------|-----------|----------|----------|
| 8 월 26 일 | \$ 408.00 | \$ 20.00 | \$920.00 |

[정정] 8 월 26 일 주일에 나와있는 '8 월 19 일 감사봉헌 \$169.00'을 '2 차 봉헌 \$169.00'로 정정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일 미사에는 2 차 봉헌이 있습니다.

## 전교부 봉사회 소식

2012 전교부 봉사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첫 모임이 곧 있을 예정이며,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 김 경희 클라라. 2 구역: 박 철우 바오로  
3 구역: 박 장현 막시무스. 4 구역: 전 은경 제노베파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전교부장 박영우 니콜라스, Cell: 703-5957)

## 공 동 체 소 식

### 기도회 일정: 9 월 5 일 (수)

'우리는 날마다 열린 귀로 무엇을 듣고 있으며, 풀린 혀로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요?' (9 월 9 일 주일미사 '오늘의 묵상').

### 공동체 임원회의: 9 월 11 일(화) 오후 7 시

9 월 한인공동체 임원회의가 9 월 둘째 화요일인, 9 월 11 일에 있습니다.

### 성체조배: 9 월 13 일(목) 오후 6 시 30 분

9 월 성체조배는, 둘째 목요일인 9 월 13 일 6 시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 소공동체 구역모임: 9 월 16 일(일) 주일미사 후

9 월 소공동체 모임은, 9 월 16 일 오전 8 시 주일 미사 후에 성당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 2012 Diocesan Congress & Youth Day: 10 월 13-14 일

Diocesan Congress: 10/13 (토), 8 AM - 5 PM

Young Adult Night: 10/13 (토), 7 PM - 9 PM

High School Youth Day: 10/14 (일), 9:30 AM - 5:00 PM

\*장소: Visalia Convention Center, 등록비: \$40 (\$30 불, 9/4 이전 예약).

온라인 등록 및 상세 정보: [www.diocesoffresno.com](http://www.diocesoffresno.com)

### CCD 오리엔테이션

CCD 등록 학생(K-12)을 두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9 월 2 일 미사후 room 6 에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담당자 및 연락처: Pat, (661) 871-3996 성당사무실

## 말씀의 이삭

## 몸을 돌려 똑바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

최인호베드로 | 작가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 오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구 시원하다. 너무 들어와라.”

속은 아들은 냉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튀어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세상에 믿을 X 하나 없구나.”

미국의 CIA 는 거짓말을 백색, 회색, 그리고 흑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흑색 거짓말과 완전한 거짓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선의라는 이름의 백색 거짓말. 그 경계가 애매한 회색 거짓말이 있는데, 아들을 속인 아버지의 거짓말은 백색 거짓말 중의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으므로 죄의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들에게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그 빗줄이아 어쩔든모든 거짓말은 악의 독소임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악마)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버지기 때문이다.” (요한 8,44)

이러한 치명적인 거짓말을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처음 보셨을 때부터 바위라고 불릴 만큼 신임을 받은 으뜸 제자였습니다. 동생 안드레아가 하룻밤 먼저 예수를 만나 함께 지낸 후 형을 데려옵니다. 이 때 ‘예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앞으로 너를 게파(베드로)라 부르겠다.’(요한 1,42)라고 예언하십니다. 베드로를 ‘눈여겨 본 천 순간’에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며, 하늘나라의 열회를 주겠다.’(마태 16,18-19)고 미래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한이 이러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 26,35)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불잡히신 후 대사제 앞에 끌려가 조롱다하는 모습을 바깥 뜰에서 불을 쪼며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여중 하나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요.’라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 돌연한 상황을 베드로는 두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일어나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중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마태 26,71)라고 거듭 말합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두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마르 14,74) 잠아 뺨니다. 이것이 악마가 노리는 거짓말의 비수입니다.

실제로 세 번째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저처럼 뺨맞고 조롱을 받는 그런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 믿었던 자신에 대한 화가 났으며 그래서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할 만큼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화를 내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 때 베드로는 ‘몸을 돌려 똑바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루카 22,61)과 마주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답이 올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입니다. 아아, 주님은 처음 본 순간부터 베드로를 ‘눈여겨보셨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본 것은 3년 후인 그 때가 처음입니다.

주님, 답이 올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직 저는 주님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또가로 쳐다보시어 아직도 거짓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베드로처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어 제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떨어져’(사도 9,18) ‘몸의 등불인 성한 눈’(마태 6,22)으로 삼라만상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소서.

-서울주보에서-